

건축사협회에 바란다

Hopes for KIRA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체제와 대응논리로는 더이상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변화에 낙오되지 않으려는 사회 각 부문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우리 건축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번 막을 내린 전국 시·도건축사회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새집행부가 하나같이 “변화와 개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사실은 이를 잘 반증해 준다.

이에 본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건축사협회의 나아갈 길”이라는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인의 의식개혁, 협회의 체질개선을 포함한 협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모색해 협회발전의 기틀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새로운 위상정립과 조직활성화를..... 金正澈
- 바람 '95 吳元根
-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崔寬泳
- 변화가 사랑받는 협회를 만든다..... 崔東奎
- 미운 오리새끼 키우기..... 金瑛燮
- 처사 건축사는 다다익선이다..... 曹泰鍾
- 새해에는 일을 하지 말자..... 承孝相
- 세계화, 국제화로..... 趙仁淑

새로운 위상정립과 조직활성화를...

Make a Change for the better

金正澈/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eong-Cheol

한해가 가면 의례히 돌아오는 새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다른 기대에 부풀어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살게 마련인가 보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한심하고 끔찍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어지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우리는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더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방식은 “대강 대강 주의”였다. 기본과 원칙이 없고 무엇이든 기준이 무시되므로 합격, 불합격의 검사제도가 없는 사회가 된 것 같다. 모두가 나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함부로 해치운다. 그리고는 모르는 척한다. 한강 다리도 대강 세워 놓으면 되었기에 불안전에 대한 보고도,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관리도 제대로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성수대교의 참사도 생겼고, 거의 모든 다리의 안전도가 못미더워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만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이래가지고 선진국 문턱을 넘겨다 볼 수 있을까? 선진국 문턱이 아니라 중진 상위권도 좋으니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임은 어인 마음일까? 우리는 3공 이후 너무나 물질중심의 고도 성장에 몰두하여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문화의 발달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격차와 괴리만 더 심화되어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이 초래되었다고 본다. 선진국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래가지고야 국제 경쟁에서 게임이 될 수 없지 않는가.

21세기를 향한 국제화 사회에서는 강자논리의 무한 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96년 이후에야 개방하려던 기술분야의 지적분야에 있어서도 조기 외국기술의 도입이 검토되는 등 법석이다. 이런때 '95의 새해를 맞는 건축계는 어떻게 해야 하며 건축사협회에서도 설계의 실무와 설계감리 분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가.

첫째는 건축사의 직능적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축설계에 있어서는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라고 생각한다. 건축주로부터의 신뢰, 더 나아가서 사회로부터의 신뢰가 없이는 건축사들은 존대받을 수 없고 직능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

므로 설계를 의뢰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사들은 겸손한 가운데 품위를 지켜야 하고 각자가 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축주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전문성과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나친 상업주의적 적당주의에 몰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존의 독점적 보호주의에서 탈피하여 인류에 봉사하는 직능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하여 장인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건축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건축사협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한해는 건축사협회의 운영에 많은 제도적 변화가 가져온 한 해였다. 건축계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건축사협회의 집안 분쟁을 개탄할 수 밖에 없었다. 올 한해는 이러한 아픔을 능동적으로 극복하여 더이상 내분없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건축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건축사협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사협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본적 취지도 기득권이나 이권만을 위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사회가 요청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각 회원사들이 협회의 방향과 의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지만 무조건 다수의 논리에 따른다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협회는 각 회원사들이 직면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판단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 회원사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협회의 역할이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만 머물게 되면 점점 사회로부터의 신뢰는 멀어질 것이다.

건축사협회에 주어진 앞으로의 사명에는 대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국제문제, 국내문제를 비롯 건축문화의 계몽과 발전을 위해 협회의 위상을 다시한번 재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3단계로 분화되어 있는 건축계의 현실을 건축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연합적 활동을 모색하여 대사회적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사협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건축사에 대한 직능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협회차원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사들의 자체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홍보 프로그램, 예를들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시민건축대학 등을 개발하여, 사협회가 건축설계 문화에 대한 총체적 대민접촉 창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화하여 회원사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자세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더욱 확장시켜 종합적으로 건축정보센터로 육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대관업무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관련 대내외 정보를 구축하여 회원사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한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업무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제안들은 지난해 건축사지의 지면을 통해서도 수 차례 논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다면 2~3년만에 활용 가능한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협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래 협회라는 조직체는 독자적 운영을 모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일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면 협회 운영은 늘 수동적이 되어 항상 문제를 뒤쫓아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우리 회원사 모두는 협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기 이전에 협회의 전체적 방향을 더 중요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협회에 상근하는 임직원들의 자율적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새로 구성된 임원단과 직원들은 건축사협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하는 협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로 건축사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기업으로 본다면 흥망성쇠가 판가름나는 시간이다. 청년의 혈기에서 노련미를 보일 때이다. 더이상 지난날의 협회상에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환경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만 하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뛰어들어 하나씩 해결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람 '95

Hopes for '95

吳元根/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Won-Keun

“협회에 바란다”라는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으니까 3주가 지났는데 아직 가닥도 잡히지 않는다.

왜 일까. 만인이 감탄할 명문을 쓸 수 있는 글쟁이가 아닌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치졸한 문장이 겁나서도 아닐텐데... 아 그거였구나. “협회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으니 UFO타고 우주여행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주문 받은거와 같을 수밖에.

과연 협회란 무엇인가. 고심끝에 협회는 “나”고 “우

리다” 그리고 “사천명백명 우리를 대표하는 회장과 회장의 명을 집행하는 사무처라는 기구로 구성된 조직이다”라고 정의하고 이야기를 풀기로 한다.

우선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린 가끔 준공식장에서 현장소장 다음에 설계사무소장 감사패주겠다는 건축주를 만나면 난감해 하지만 그래도 설계를 단종 하청업종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건설회사 임원보다는 유식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쓴웃음을 짓곤 한다. 어찌다 우리가 이지경이 됐을까. 이제는 더 잘못도 없지 않은가. 나락의 끝인데...

가끔 소장들 모이면 요즘 애들 일 안한다고 흥분한다. 소장들은 밤낮없이 일하는데...

내가 설계에 직접 손댄것이 언제였든가 생각해 본다. 무엇으로 UR을 대비할 것인가. 현재의 설계비 수준이면 미국에서도 설계하겠다는데 어쩔 것인가.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당당한 전문가이다. 허가나 내주는 “설계업자”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내자리를 찾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건축가로서 존경은 못 받더라도 전문가로서 신뢰는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감리문제만 해도 그렇다. 감리업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불법건축물 발생억제차원에서 관청업무를 대신한 것에 불과하며, 지하실, 건폐율, 최고높이 등의 적법성 여부에 있어 배근검사 정도에 그치는 업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심사속고하여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공사감리라는 새로운 업종을 인정하자. 물론 당분간 경제적 손실은 예상되지만 남의 전문성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영역을 확실히 보장받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둘째, 회장과 조직에 대한 바람이다. 온 세상이 개혁해야 산다고 아우성인데 협회는 어떤가. 물론 협회는 건축사의 권익을 위한 집단이고 따라서 수구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버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협회도 성인병 걸릴 나이가 됐으니 건강진단 한번 받아 보자. 배설 기능이 나빠져서 노폐물이 쌓이지는 않았는지 암세포 때문에 뇌나 심장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정부도 기구를 축소하고 업무를 민간과 지방에 이관하는데 우리 협회는 어떤가. 무슨 시험소 만든다고 조직 하나 없애더니 이름 바꾸어 존속 시키고, 신문 만드는데 돈 모자란다고 그 귀한 돈 몇 억인가 쓰겠다고 하고, 집행부는 놔둔 채 비상대책위원회인지를 만들어 많은 예산을 써 버리고...

물론 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행한 것이니 집행하는 사람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만 좀 심하지 않은지.

심기일전 새로운 협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직은 잘짜여 있고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인력은 적재 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으며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자체 시험소는 꼭 필요하며, 자체 신문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종 기금은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운용되고 있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이 크고 쓰는 돈이 많아야 협회가 공신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다섯 명도 안된다는 일본 건축사협회에는 건설대신이 취임하면 인사를 온다지 않는가.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을 내분의 적이라고 지적한 어느 사가의 말을 생각하며 신임 회장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다려 본다.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Starting Point for the New Face Who
Fills his Niche

崔寬泳/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Kwan-Young

1995년은 처한 바 어울리는 협회의 새로운 모양을 갖추기 위한 시작의 해로.

(Starting Point for the new face who fills his niche)

1995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획하고 시행하는 시작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몇 년전부터 변화와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정치쪽에서 사용되어 오면서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얘기하고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지난번 새 집행부를 탄생시킨 전국 시·도 건축사회의 총회에서조차 변화와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후보자가 없었다고 한다.

주변이 모두 그렇게 '외쳐대니 그냥 따라서 같이 떠돌기가 쉬운 것인가? 아니라면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성찰에 근거하여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하는지의 정확한 분석과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스스로를 지성인들의 단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그 지성적인 판단에 의해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맞게 옳고 발전적인 변화를 소리없이 꾸준히 추구해 왔다면 오늘 이렇게 거창한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내걸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적당히 말로만 하다 보면 내년이면 또 같은 말을 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즈음하여 협회는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 봄이 바람직스럽게 여겨진다.

우리 모두는 바람직한 건축환경의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응한 몫을 해야 한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몫 외에 회원 개개의 차원에

서는 할 수 없든지 하기에 힘겨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 협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즉, 모아진 힘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존재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대 사회적으로 전문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정당하고 성실한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협회가 처한 바 어울리는 모양의 것이며 모든 회원에게는 그 소속됨이 자랑스럽고 유익스러움으로 느껴질 것이다. U.R이니 개방이니 무한경쟁이니 하는 것에 의하여 변화와 개혁을 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당연하고 꾸준한 발전 추구때문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연한 사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어렵고 귀찮은 역할일지라도 해야 할 일은 능동적으로 책임있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록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되는 역할은 오히려 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에 옳은 컨센서스(Consensus)를 가지고 있는지?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반대로 대의 명분없는 잡다한 일들로 오히려 조직과 인력이 낭비되어 회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기적인 발언보다는 올바른 회원들의 발언이 수용 선별될 수 있는 의견 수렴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좋은 건축을 위해서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건축 행정체계나 법령 등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에 의한 순발력 있는 대응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쏟아지는 정보들을 정리하여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회원에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는 없는지?

양질의 설계인력이 오랫동안 부족한 상황을 적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세울수는 없는지?

대 사회적으로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능동적인 노력과 행위를 등한하지는 않는지?

이외에도 협회의 존재의미와 시대상황에 비추어 자문(自問)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으로도 지나친 기대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한 자문에 대한 올바르게 정확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내고 그것들을 위한 과감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실천력과 추진력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도부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변화와 개혁이 금방 될 수 없는 것이니 1995년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가는 탄탄한 전도의 시작점이 되어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냄과 동시에 그 소속됨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를 바란다.

변화가 사랑받는 협회를 만든다

Makes a Fresh Start

崔東奎/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Kyu

건축사협회로 부터 글을 부탁받고 나는 건축사 협회에 대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본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전회원의 바람을 상상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내생각인 만큼 나의 생각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건축사지에 최근에 게재되는 회원들의 글들을 보면 요즘 들어 특히 한탄조의 이야기들이 많다. 어쩌다 건축사의 위상이 이렇게 됐냐는 등, 그리고 너무 단합이 안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지금이 일제 식민지시대라면 곳곳에서 우국지사의 총정과 탄식이 배어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겠지만, 모두가 이런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연히 사기만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바라기는 건축사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해서 잘하는 사람은 대단한 건축사로 대접하여 일반에게 최대한 알려져 건축사의 위상을 높여주고, 반면에 자기의 최소한 소임마저도 다하지 못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협회에서 그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제 오늘사 이 대한변협에서는 최초로 악덕변호사를 제명하였다고 한다. 강력한 징계권이 있는셈이다. 현재 협회에서는 징계권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셈이다. 의사들도 존경받는 의사가 있어 각듯이 선생님 대접을 받는가 하면, 악덕의사나 돌팔이 의사도 있기 마련이다. 단지 그 비율이 문제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 굳이 건축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부회원들로 인해 같이 상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회원을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사회에 대해 존경받는 건축사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쉽다고 생각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동아일보사 주최로 사진, 미술, 음악 등 예술부분의 상이 있는데 이부분에 건축이 빠져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건축부분의 상이 신설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바로 할일인 것이다. 요는 잘못된 것은 매스컴이 귀신같이 알아내어 어떻게든 대중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반해서 잘된 것에 대한 홍보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상이 격하된다고 생각된다. 즉, 대국민 홍보의 방법을 다양화시키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이 수시로 바뀔뿐 아니라, 또 바뀌어진 법도 오래지 않아 뜯어고치는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사실은 법규가 건축사의 창작행위와 불가분의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미리 외국의 잘된 건축법규를 검토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규를 연구하고 먼저 행정 당국에 제시하여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즉 법규개정에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 아는 일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법규 개정이 잦은 나라도 없을 것 같다.

나는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지는 과문한 탓인지 잘 들어보지 못했다. 결국은 건축분야에서의 잦은 법개정도 건축부분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시행하는 한국건축전은 사협회가 서울경제, 건설부 등과 합동으로 주최하는 큰 행사이다. 이 한국건축전의 심사에 저명한 외국건축가를 참여시켜 우리의 건축수준을 알리고 그들이 보는 건축미학의 잣대로 우리도 한번 평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건축사들 마저도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몰아부치곤 한다. 요는 한국에는 한국 고유의 건축을 보는 잣대가 따로 있다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이것 또한 편협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당분간 외국지명 건축사와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수준을 그들에게 알리고 우리것도 이들을 통하여 좋은것은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점이다. 요는 세계 유수의 건축사들이 우리보다 실력과 창조성이 뛰어난을 인정하되 이것이 무서워 대문을 걸어 잠그고 중요 대소사를 집안잔치로만 돌리는 것이 바로 문화적 쇠국 내지는 열등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보고 평가해왔던 시각과 그들이 보는 시각과의 차이에서 우리는 대승적으로 좋은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냉철히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건축이 지금처럼 세계건축과의 교류에서 담을 쌓고 지내는 듯한 상황도 해소되고 또, 이렇게 합동으로 심사를 거친 건물들에 많은 건축사들이 공감하게 되면 좋은 풍토 조성이 될것이라 생각된다. 이를테면 건축사들 사이에 퍼져있는 냉소주의는 여리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의 공정성과 또한 심사위원의 안목에 승복하지 않는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구성에서의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상당히 신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건축사의 강연회를 직접 듣는 기회도 자주 마련하여 기성건축사들도 자극받는 것 또한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예를하나 들어본다. 인도에서 국부인 간디 기념관 경기 설계를 국제 경기로 치렀다. 심사위원장은 영국 건축가인 제임스 스테링. 뽑힌 작품은 미국건축사의 안이 뽑혔다. 상상을 해보라, 인도와 영국은 우리 대한제국 시절

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문화적인 행사를 이렇게 치루어내는 인도는 쓸개도 없는 형편없는 나라인가? 문화에 있어서는 한차원 앞서는 나라인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몇가지 열거한 방법들이 채택되어 바뀌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변화되고자 이러한 주제를 내놓았다면, 형식적으로 건축사지의 페이지나 메꾸기 위해 이런 주제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면 변화되어야 사랑받는 협회가 되는 것 만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외에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을줄이나 나에게서는 이러한 몇가지가 가장 절실하게 느껴져서 이야기해 보았다.

미운 오리새끼 키우기

Bringing Up the Ugly Duckling

金瑛燮/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by Kim, Young-Seop

최근 한 3년전 쯤부터 나는 건축사협회의 가장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다. 나는 6공화국 말기에 「설계·감리 분리확대 저지운동」을 계기로 새건설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택 설계나 성당설계를 일년에 너댓 작품정도 하고 그것을 짓는 과정을 즐겁게 지켜 보는 익명의 중견 건축가였으며 모짜르트와 바하 그리고 서양의 중세음악을 즐겨 듣는 소박한 아마추어 음악애호가이자, 일주일에 한번씩 혼자 공부해온 다듬어지지 않은 미술사를 국민대 조형대학에 강의하러 다니는 시간강사의 일상들을 사랑하였던—학교 가는 즐거움, 삼청공원의 뒷길과 성북동에서 정릉골을 넘나드는 길을 사계절 내내 사랑하던—그야말로 작은 꿈을 가지고 스스로의 분수에 만족해 하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그러나 “설계·감리 분리확대 시행”을 계기로 세상 돌아가는 치열함이나 집단이익이라는 단어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없었던 나의 삶에 어느날 갑자기 “건축사 협회”라는 단체가 뚜렷이 실체를 드러내었고 그 내면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갑자기 싸움패로 변신한 것이다. 하지만 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관된 생각은 그 싸움의 대상은 쳐서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왔던 관행과 제도를 바라는 것과의 싸움이었기에 무척이나 망설여졌던 일이었고 그 과정 또한 힘겨운 일이었다. 더구나 나는 이 싸움의 대상 속에 이미 한 일원으로 자리잡은 터이었으므로 더더욱 그러하였다.

처음의 싸움은 이미 모든 회원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뜻을 같이하는 몇몇의 회원과 만나 토론하고 뜻을 결집하여 “설계·감리 분리확대”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일이다. 혹자는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벌인 개혁의 시류에 편승하여 건축백서 등 건축관련 행정제도개선안을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 내고 새건축운동을 벌인 것처럼 잘못알고 있으나 처음의 시작은 바로 그와 같은 소박한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일년에 한 두채, 보통 5~6개월 걸려 설계하는 주택을, 즉 자기가 어렵게 낳은 한 두 자식을 자기가 정성 들여 키워보겠다는 소수의 애정이 깃든 건축가의 의지가 일년에 수십건, 수백건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설계를 양산해 내는 일부 건축사사무소의 “양”의 논리와 건축사협회 각 분회 내지 분소의 유지비용, 그리고 분리 감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었던 집단의 경제논리에 희생당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던 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이 설계·감리 분리반대운동에 서명한 것이다. 1992년 서울건축사회 정기총회 날 하룻 동안에 서명에 참가한 회원이 600여명에 이르러 그 사이 말없이 침묵하던, 아니면 침묵해야 했던 다수 회원들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제1회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한 연남동 주택과 연이어 수상한 제2회 때의 서대신동 주택 모두를 내가 직접 감리하기 위하여 “주택 및 전시시설”로 바꾸어 허가를 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돌이켜 보며 내친 김에 그 동안 왜곡되어 왔던 각종 제도와 법, 그리고 관행들에 대하여 들여다 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협회에 개선안을 제출하였고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절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것은 스스로 감리를 원하는 건축사에 한하여 선별 구제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협회의 내용과 위상도 바뀔 수 있으리라는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회장단이 문을 연 협회는 곧바로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 파동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고 곧이어 스스로 뽑은 회장마저 끌어내리기에 이르렀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나를 포함한 소위 새건설의 7인의 의견은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설계·감리확대 고수에 급급한 일부 회원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자신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건축사회를 대표하는 회장마저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바꾸어버리는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였고 이어서 서울시 설계·감리에 관한 지침 공문 변조와 관련해 서울시 전회원에겐 긴급 전송되어진 FAX발송사건에 대해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소집한 원로와의 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을 당시의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이 일방적으로 “새건설이 다시는 돌출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사과 일변도의 조작된 기사를 막 발간을 시작한 건축사 신문에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벽”이라는 단어를 실감한 새건설 회원들은 1993년 5월 14일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뜻있는 건축계의 중진들과 함께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였고 이 건미준은 경실련과 같이 분명한 대안제시를 통한 온건한 방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후 건축가 선언을 비롯하여 건축

백서, 건축민원해소 방안, 건축교육제도개선 그리고 최근의 공동주택 백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다.

새해를 맞으며 과거를 회고해 보는 이야기를 늘어 놓는 이유는 분명하다.

즉 이른바 “바보론”이 그것인데 요지는 이미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가장 큰 바보라는 것이다. 최근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건축사협회는 내외부로부터의 많은 변화와 시련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올해야말로 건축사 협회가 정말 새롭게 탄생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다수의 올바른 의견을 민주적으루 수렴하는 기구와 체제를 갖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본회장을 선출하고 협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최고 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을 서울시 건축사회의 경우와 같이 대의원선출방법에 있어 서울시 회장에 20%의 선출권을 위임하고 분회에서 80%를 선출하고 소위 이른바 2·8제로 안배하는 식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새로운 탈바꿈은 이미 물건너 간 일이다. 이 개명 천지에 이와같은 원시적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 회원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을 민주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든지, 선출과정이 복잡하거나 아직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을 경우, 잠정적으로 차량 10부제 처럼 끝자리 회원 번호순으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의무 대의원제도”라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토대없이 치르어지는 회장단 선거는 과거와 같은 지역과 연고, 학연 등의 분파작용의 악순환만을 낳을 것이다.

둘째로, 다시는 건축사협회의 회장이 T.V에 나와 컨닝 시험을 변명이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자격시험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축사가 협회내에 많아질수록 건축사협회의 위상과 힘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려면 건축사 시험은 암기 위주의 필답시험이 아니라 설계와 표현능력 위주의 실무시험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의사시험 중에서 전공의 시험도 수술 등 현장 시험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지 않는가.

셋째로, 건축사협회는 진정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로서의 역할정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선 기술과 문화라는 21C를 주도하는 두 상징 단어의 뿌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축교육의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바로 건축교육의 개혁이야말로 진정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또 다른 미운 오리새끼를 기르고 키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미운 오리새끼가 결국은 백조가 되리라는 희망으로...

처사건축사는 다다익선이다

Architects of Good Character

曹泰鍾/종합건축사사무소 마당

by Cho, Tae-Jong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내 판매시설을 가능케하여 가격파괴혁명을 선도한다고 연구중이라고 한다.

즉 건축법이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시 계획이나 건축이 그 고유의 목적과 목표만으로는 존재의 미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온 나라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고 본다.

우리 협회의 현안들을 보자.

맨날 건축법에서는 사소한 '지하층 노출등으로 벌칙규정이 강하다고 완화했으면 하고, 건축사법에서는 종합이나 단독이나 등으로 화합보다는 개인위주형태의 사무실 유지를 주창하였으며 다른 부분은 월정회비미납, 도서등록제도 폐지 대처방안, 연금회비 등의 납부액과다 등을 외치고 있었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는 건축의 개념이 공학과 예술의 개념을 뛰어넘어 국가 경쟁력 제고의 수레바퀴속에서 힘차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은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일까?

한정된 공간에 쥐를 기르며 수를 점차 늘려가면 어느 한계를 넘으면서부터 쥐들은 병리적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동물형태학자 존 켈혼은 12년간의 실험을 통해 발견한 이같은 현상을 지난 1958년 「싱크(Sink)현상」이라고 명명했다.

협회도 이미 싱크현상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 강제적 징수방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예측된 협회에 대하여 무능한 소치의 결과론, 해체론, 필요성 존재여부, 노골적인 공격성, 도덕적 불감증 등이 쥐들의 실험과 같은 징후일지도 모른다.

도서등록제도가 없어진다고 알려진 이후에 많은 관심 있는(?) 건축사들께서 협회의 존재유무를 사둔 남 말 하듯이 하고 다닌다.

예전에 무엇을 도와주었느냐니, 회원들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하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구시대적 산물의 하나인 반 강제적 징수방법의 일환으로 협회가 존재된 것이었다면 그동안 일부 건축사들은

협회에 소속되어 살아오면서 오로지 반감만 키워 온 것 같다.

또 10년 가까이 소규모건축물의 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른 많은 건축사들은 일을 찾아서 연구하는 습성에서 벗어나 관에서, 협회에서 반 강제적으로 돈도 벌여주고 권한도 갖게 해주던 제도에 동경의 눈초리로 타성에 젖은 양심을 찾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제 구시대적 산물은 다 사라지고 신천지가 협회앞에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기하급수적으로 건축사들은 많이 탄생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설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15%를 넘지 않고 있고, 유럽, 미국,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건축경기도 점점 퇴보될 전망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에는 건축사는 존재할 것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 건축사가 없다면 협회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존재되어지는 협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개척지로 향해가는 원년에 서서 협회를 위한 제언을 몇가지 나열해 보면서 다함께 화합해야 하는 협회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1. 다 함께 참여시키자.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의 평균연령이 45세 정도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듣고 있다.

불혹의 나이를 넘지 않은 건축사가 과반에 조금 미달 된다는 뜻이다.

젊은 혈기는 건축을 사랑하고 건축의 언어로 우리네 세상을 뒤덮을 용기이기도 하다. 젊음의 소리는 아직도 십리밖에서 맴돌 뿐이다.

5년 단위로 나이 그룹을 만들고 그 비율대로 협회 이사부터 분과위원까지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다함께 미래의 협회를 걱정하고 연구하자.

2. 지역건축사회를 소규모 정예화시키자.

시·도 건축사회보다 큰 구건축사회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은 위계질서나 조직의 원리를 무시하는 개념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정상적활동이 상식으로 통하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다. 1개구에 여러개의 건축사회가 존재하지 말라는 논리도 당위성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무 많은 인원으로 조직을 존재시키면 비대해져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질 수도 있다. 선의의 경쟁이 더 나은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지역건축사회 활성을 위하여 50~10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 건축을 예술로 토론시키고 연구하자.

3.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예를들면 각 시, 도, 구의 건축조례,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심의기준, 날짜, 위원 등도 가능할 것이고 각 회원 작품의 개요,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을 필요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자. 부족하고 배우고 싶은 회원에게, 후배들에게 정보를, 지식을 선사할 수 있음도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러교수가 제창하는 덕을 지닌 사람(자아실현)의 10가지 특성에 포함될수 있을 것이다.

4. 수익사업으로 회원의 부담을 줄이자.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작가의 제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내게하면 소정의 수수료는 협회의 수익사업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도 가능하므로 적극적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가능할 것임).

신문, 잡지, 입찰정보통보(회원대상), 도서목록 정보 제공(건설, 단종 및 자재회사대상)등이 가능할 것이며 수익사업의 대상이 도처에 있을 것 같다.

5. 미래를 연구하는 협회를 이루자.

미래의 건축사는 있는가라는 의문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연구보고서보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멀리내다보는 보고서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엘리트 지식층 집단으로서의 역할에 비금가는 보고서를 창출하여 미래사회를 제시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자.

6. 국익에 기여한 건축사를 지원하는 협회가 되자.

외국에서 설계공모한 국제현상경기에서 입상하였고 협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국익에 기여한 노력이 현저한 건축사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지원금액이 올림픽 입상자처럼 상상을 초월한다면, 유능한 건축사들의 혈기와 용기는 외국에서 협회를 빛낼 것 같다. 외국의 건축주로부터 수주된 경우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협회도 국익에 필요한 단체가 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7. 회원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최상으로 선사하자.

지역가입회비 철폐, 도서검토제폐지, 도서등록처의 자유화, 새로운 정보의 최단시간내 전달, 필요한 회원에게만 제공비 받고 자료제공방안, 회원의 주문에 따라 유료 정보제공제도 신설, 각종계약서의 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불편했던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에 무궁한 도움이 되고, 또 꼭 회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상으로 선사하는 협회이어야 되겠다.

조선조 중엽의 남명선생과 퇴계선생은 도학의 쌍벽을 이룬 분들이다. 퇴계선생이 말하기를 평생에 처사(處士)가 되기를 위하여 죽을 때 영정에 벼슬이름을 적지말고 '처사(處士)'라고 써주기를 희망했다지만 그는 처사 지망생이었지 처사는 못 되었다. 진짜 처사는 남명선생뿐이라고 한다.

처사 남명선생의 자세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입장을 승화시켜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격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處士建築士는 과연 누구이고 몇명이나 될까

處士建築士는 多多益善이다.

새해에는 일을 하지 말자

Don't Ardently Attached to Work

承孝相/종합건축사사무소 이르재
by Seung, Hchloh-Sang

몇주전 노출콘크리트로 된 소규모 빌딩을 구경시켜 달라는 어느 예비건축주의 청으로 함께 오사카와 교토를 다녀왔다. 교토는, 일본의 고도로 역사의 흔적이 두드러지게 남아있고 일본문화의 전통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인지, 변쩍거리기만 하는 듯한 일본의 여타 도시들에 비해선 부담이 덜한 도시이다.

이 도시에 몇해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기다야마도리(北山通)라는 거리에 가면 다까마츠나 안도 등 일본의 톱 레벨에 있는 건축가들의 고도로 집적된 개념을 갖는 건축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 거리는 전에 두어번 와본적이 있어 나에게는 더이상 흥미롭지 못하였으나 지난 봄에 준공한 안도다다오의 「陶板名畫의 정원」이 다시 가게 만들었다.

850여평의 좁지 않은 땅에, 세계적 명화들을 도자기판으로 만들어 세우고(일본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리저리 전시루트를 설정한 옥외 전시장격인 이 건축은 안도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일상의 피폐에서 벗어나 정신의 생기를 회복”하고자 세웠다 하는 것이 다소 상투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기회만 되면 문화를 가꾸고 만들고자 하는 기획과 발상은 우리로서는 부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정작 이 건축에서 주목하게 된 바로는 그 전에 느끼고 본 바 있는 안도의 건축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안도가 흔히 쓰는 브릿지도 있고 테크라든가 경사로, 소위 회유(回遊)를 위한 장치가 곳곳에 있으며, 그의 대명사처럼 된 노출콘크리트, 단순한 디테일등 그의 건축어휘와 기교가 총출동하여 이 건축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하여도 내 가슴에 남는 감동은 전무였으며, 기억되는 이미지는 그의 상투적 어휘일 뿐이라는 데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스미요시주택에서 보는 긴장도 없고 BIGI에서 보는 도시와의 관계도 없으며 육갑(六甲)의 교회에서 만나는 드라마도 없다. 필시 남작(濫作)의 결과일 것이다.

김수근 선생은 살아생전 25년간의 길지 않은 작업기간 동안 출잡아 250여개의 프로젝트에 관여하신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그중 실제 지어진 것이 100여개에 이르며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40여개로 추정된 바 있었다. 결과적으로 1년에 2개도 채 못되는 건축을 남기신 것인데, 만약 1년에 2~3개 정도의 프로젝트만 집중적으로 열중하셨다면 선생의 건축이 이미 동서를 뛰어 넘는 명작의 반열에 설 수 있음을 공상하는 것이 다만 부질 없을 뿐일 것인가.

종종 만나는 외국 건축가들에게 내가 하는 일의 양을 설명하면 놀란표정 짓기가 일쑤이며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인사를 받기도 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이면에는 내가 하는 작업의 수준을 비웃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들처럼 1년에 1개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너무도 일이 많다. 일이 많으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하니 부실이 되고, 애절함이 없어지니 감동적인 건축이 없을 수 밖에 없고, 처절하지 못하니 영혼의 존재를 일깨우는 건축을 보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니 무너지고 떨어지고 갈라지고... 드디어 우리의 자존심은 어느새 시니컬하게 변해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우선 일을 하지 말자. 처절하고 간절할 때에 그때에 일을 하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때에만 팔 걷어 붙이고 미친듯이 일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일을 하지 말자

새해에는 일을 하지 말자.

결코 안도처럼 되지 말자.

세계화, 국제화로...

Strives for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趙仁淑/다리건축사사무소
by Cho, In-Souk

1. 건축교육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명실공히 국제기구의 주요회원국으로서 최소한 그 기구에 있는 위원회는 갖추어야 한다. 몇 년 동안 국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교육위원회(ACAIE)회의 참석 후 보고서에 수년 동안 되풀이 하였지만 아직도 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필자의 전임위원을 비롯한 당사자들 뿐이었다. “교육(Education)”이라하면 무조건 대학교육만 생각하는 사고의 한계 때문에 교육이야기만 나오면 분

협회의 이사진들은 그것은 학회가 할 일이라고 한다.

건축교육에는 1) 첫째, 미래의 건축가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있고 2) 둘째, 학교마친 후 건축사가 되기까지의 교육이 있고 3) 셋째, 면허를 등록하고 진정한 건축가로서 일해 나가야 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Academic Architectural Education)에 관한 것은 건축학회 등을 통해 많은 자료가 이미 축적되어 있지만 전국의 “건축과 교수 협의회”라는 가 하는 모임 등을 통해 의견교환 및 개선점들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우리협회가 지원내지는 창구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협회는 이미 학생작품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일을 해왔고 해마다 두 명을 선발하여 해외건축학 또는 학생챔버대회 파견을 해왔으니 사실상 이미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던 셈이다. 좀 더 나아가 국제사회-적어도 아시아지역 내-에서 학생교류라든가 교수교류등을 담당해야 할 창구역할을 우리협회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협회가 건축사협회이니 만큼 건축사 본인들과 건축사사무소 구성요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 계속교육의 부재때문에 건축사보들은 궁지나 도덕이 없고 건축사들은 도덕이나 윤리를 저버린지 이미 오래되었다.

학교마친 후 설계내지는 감리분야에서 일하는 건축사보 들을 위한 교육(Professional Training + Development after Graduation)에는 기본소양교육을 곁들여 건축사가 되는 자세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단순히 면허증을 따내기 위한 시험준비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사무소에서 견습을 몇 년 하면 저절로 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하고 갑자기 면허증이 생기므로 해서 특별한 부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적절한 건축사보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이웃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업 후 일해나가는데 필요한 평생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fter Registration as an Architect)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과 윤리교육이다. 공정한 경쟁및 거래를 바탕으로 하여 기술력을 축적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국제사회에서 도태되어 고립될 것이다.

종전에 해왔던 형식적인 연수프로그램은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일환이 되게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 스스로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 억울함이 없도록 도덕 및 윤리를 포함한 기술교육의 평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단 건축사협회 회원이 되면 더이상 유럽이다 미국이다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여 중요한 사항들은 애초에 Bilingual로 만들어야 한다.

해마다 KIRA 활동보고서를 준비하다 보면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큰 제목이라든가 주제, 사람이름, 사무소이름, 그리고 요지들은 처음부터 영어로 표기해 놓으면 전달하고자 하는 글 또는 작품의 내용이 국제화된 사고로 정리가 될 것이고, 필자나 작가의 의도와 맞지않는 영문표기나 번역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나라보다도 국수주의적인 민족이다. 상대편의 입장이나 상황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내 편리한 대로 해 놓고 남이 나를 이해해주기 바라는데 이것은 옳지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우리 협회지(Journal)만 해도 세계각국 안가는 나라 없을 정도로 보내진다. 회원작품의 경우 최소한 작가 스스로가 만든 작가 의도를 단 몇 줄이라도 영문으로 표현해주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겠는가, 아울러 그 자체로서 국제무대에 이미 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민간외교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3.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협회가 방패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어떤 개인사무소가 예를들어 중국같은 나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임받았을 때 과연 주변에서의 반응이 어떤가?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어 그 프로젝트를 빼앗아 보려는 심사가 크다. 개인이란 아무리 커도 5천여 회원의 협회만큼 강할 수가 없다. 예를들어 중국 등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뒤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협회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무난히 돈 받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 회원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다는 협회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므로 우리 협회가 든든한 후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대국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4. 위원회 위원 위촉의 신중성 검토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들을 구성할 때 신중하게 선임해야 한다. 종전처럼 이권이 개입된 비객관적인 인원구성이 계속된다면 우리협회는 소생불능이다.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개회원을 대변하는데 손색이 없어야 한다. 적어도 50대 전후의 회원으로서 사무실도 어느정도 안정이 된 상태라야 위원으로서 또는 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해도 스스로에게 그리고 협회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회원 스스로는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말고 적합한 분야에 나서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봉사활동을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위원회 경우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교류할 것이고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실력 발휘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 권유하여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회원 스스로의 도덕재무장

우리 협회 회원들은 스스로가 자기 값어치를 격하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관공서에 머리 조아리기, 구차하게 굴기 등은 오래된 얘기이고, 대학교수들에게 비열하게 굴기 등등 건축사의 위상이란 바닥에 있는 것이다. 기술계 면허자격 중 학계의 박사학위나 기술계의 건축사가 동등한 레벨이지만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평상시 대학교수들에게 계획설계 용역 의뢰하고 훗날 현상설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잘 봐달라고 하기 등등, 그러려면 대학교수로 하여금 설계하고 법률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할 일이지 설계사무소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D사무소의 경우 너무나 버젓이 현상설계 심사위원명

단을 스스로가 작성해주고—물론 참고용이겠지만—(소장이 관공서 출신이라나)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되지 못한 작품가지고 밀어달라고 부탁한다. 현상설계의 당선작과 아닌 것은 실력차이는 별 개 아니지만 결과차이는 크다. 수십억 내지는 수억원짜리 설계권을 부여받느냐 아니냐에 수 천 만원 짜리 계획설계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속셈이다. 그것을 수임받은 교수들 입장은 어떻겠는가? 건축사들을 우러러볼까? 건축사들이 못할 일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할 것이고 건축사들을 모자라는 인간 취급밖에 더 하겠는가. 우리 협회회원들은 대학교수들을 이런식으로 대접해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의 도덕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관공서나 대학교수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먹이 사슬관계로만 계속되면 평생 건축사협회는 소수의 몰지각한 건축사들 때문에 Unqualified 집단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이런 회원들은 철저히 가려내어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원고모집

「건축사」지는 건축사 여러분의 대화의 “場”입니다.

월간 「건축사」지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지이며, 모든 건축인을 위한 잡지로 항상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에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 ☆ 시, 수필, 수상, 건축기행문
- ☆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 ☆ 회원작품(최근 1년 이내 준공된 작품)
- ☆ 계획작품(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 ☆ 작품스케치(작품과 관련된 개념스케치)
- ☆ 회원 갤러리(그림, 사진, 조각 등)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우편번호 : 137-070)
전화 : 587-8504(직), 581-5711~4(교) FAX : 586-8823